

# 1 : 26 idea의 차이

The difference of idea 1 : 26



조 성 운 /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시설과장  
 Cho, Seong-Woon / Chungcheongbuk-do Cheongju Office of Education Facilities Manager  
 woieni@cbe.go.kr

## 1. 들어가면서

문교부,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로 그 기능과 조직이 다변화하는 사회의 구조에 적응하는 동안 30년 공직생활 나름 학교시설의 담당자로 지내왔지만, 학교시설의 정의에 대해 한마디로 논하라 하면, 학교시설 담당자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앞이 깜깜하다.

예전의 학교 설계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한 시절이 있었고, 산업화에 접어들면서 학교시설의 양적 증대가 필요해 짐에 따라 학교시설표준설계도가 제정 운영되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학교시설 또한 질적인 학습공간이 필요해 짐에 따라 획일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시설표준설계도가 사라지고 건축사들에 의한 용역설계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표준설계도로 건축된 학교시설에 비해 약간의 질적 향상은 되었으나 열린 교실, 교과교실 등 다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미래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수·학습공간의 확보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설계는 법적으로 건축사면 누구나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수요자가 요구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학교시설의 설계를 건축사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긍정적인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

학교시설전문가라고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시설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건축사들이 설계에 참여한다면 좋은 학교시설 확보에 유리함에도 건축사면 누구나 설계할 수 있다고 판단, 전체 건축사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에 웬지 씩씩한 기분 지울 수 없다.

다변화하는 사회에 다양한 교수·학습공간이 요구되고

아이들의 감성을 담고, 미래에 대비를 대비하는 학교시설을 만들기 위해 설계자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해 온 설계공모를 참고로 설계공모방식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 2. 제한경쟁입찰(PQ방식)과 설계공모방식에 따른 학교시설의 비교

설계공모는 우수한 설계자와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가 요구되어야 하나, 일부 심사위원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심사위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나 설계공모의 역사가 짧아 현재 관리중인 인력풀로는 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일반 경쟁입찰과 달리 소요기간이 길고 시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꺼려해 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좋은 시설확보를 위하여 예산확보 시 개교시기 및 사용 시기에 따른 충분한 설계기간을 확보함은 물론 기존의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을 보완, 간소화하여 소규모 사업에 적극 반영 시행하였다.

또한 도교육청산하에 관리국장을 단장으로 20여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북도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 설계공모방식에 의해 선정된 작품은 그 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설계된 계획안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계획안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운영,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림 1. 양청고 조감도



그림 5. 오송고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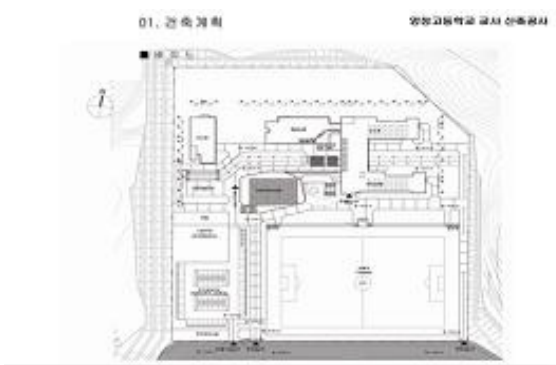


그림 2. 양청고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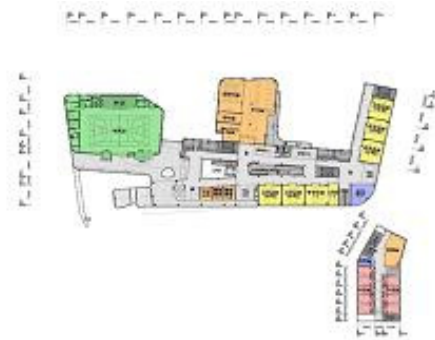


그림 6. 오송고 평면도(기준층)



그림 3. 양청고 평면도(기준층)



그림 7. Y중(조달청제한경쟁입찰-당초)



그림 4. 오송고 조감도



그림 8. Y중(조달청 제한경쟁입찰-수정)

학교 시설 및 환경의 종합적 향상을 위한 제언

앞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 1~3>의 양청고등학교와 <그림 4~6>의 오송고등학교는 설계공모를, <그림 7~8>의 Y중학교는 조달청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설계자를 선정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조감도만으로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계공모로 시행된 <그림 1~3>의 양청고등학교와 <그림 4~6>의 오송고등학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교과교실제를 반영하여 계획된 것으로 그 형태는 물론 기능에 적합한 평면형태가 교과교실에 따른 교수 학습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되어진 작품으로 선정이후 심사 강평에서도 호평을 받은 계획으로, 충청북도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그 계획안을 인정받아 약간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건축되었으며, <그림 1~3>의 양청고등학교는 2011년 전국교과교실제 우수시설에서 신축부분 대상, 전체부분 최우수상을 받아 전국적으로 교과교실제 교수학습공간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2012년 준공 개교한 <그림 4~6>의 오송고등학교 또한 전국적인 모델로 제시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건축물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전국적인 견학에 몸서리를 알 정도로 최고의 학교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반면 제한경쟁입찰로 선정된 Y중학교 계획안은 설계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고등학교에 비해 설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그림 7>의 당초계획안과 달리 <그림 8>과 운동장의 규모와 주차장의 위치를 비롯한 건물의 배치, 평면, 입면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시설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북도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기능에 적합하도록 많은 부분이 수정되어 현재의 시설이 건축되었지만, 설계공모로 선정된 고등학교에 비하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나타났다.

3. 설계공모 활성화 방안

학교시설 설계자 선정방법으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경쟁입찰 방식이다. 이 방식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설계용역 추진은 용이하나 다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우수한 작품 및 설계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사전공모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과 설계자 확보에 유리한 설계공모방식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을 확보, 교수학습과정에 가장 근접한 교육시설환경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설계공모방식은 사전에 작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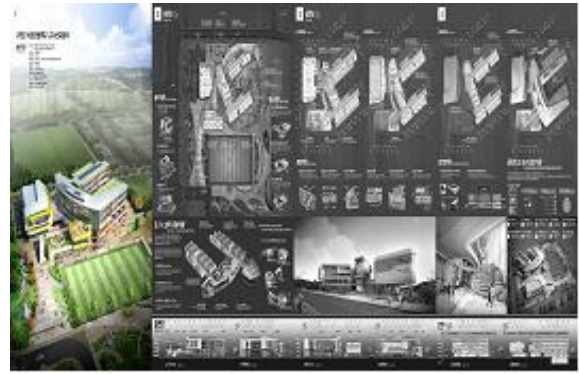


그림 9. 조감도와 컬러링이 허용된 심사 패널

표 1. 설계공모 추진현황(2008~2012) - 대규모

학 교 명	사 업 명	설계참여 업체 수		제한
		현설 참여	작품 제출	
양 청 고	양청고 교사 신축공사	14	6	전국
청 명 학 교	청명학교 신축공사	26	8	충북
유아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신축	13	3	전국
오 송 고	오송고 교사 신축공사	33	7	전국
교육정보원	교육정보원 신축공사	29	4	전국
오 성 중	오성중 기숙형 교사 신축	31	7	전국
각 리 2 초	각리2초 신축공사	29	8	전국
충 북 체 고	충북체고 이전 신축공사	19	2	전국
대소금왕고	대소금왕고 교사 신축공사	22	10	전국
본 성 초	본성초 교사 신축공사	19	2	전국
본 성 중	본성중 교사 신축공사	22	4	전국
석 장 초	석장초 교사 신축공사	12	3	전국
솔 발 초	솔밭초교사신축공사	26	8	전국
내 북 초	내북초 이전 신축공사	15	6	충북
속 리 산 중	보은 기숙형 중학교 증축	48	12	전국

한 작품과 설계자가 선정되는 반면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은 설계공모를 추진함에 있어 우수한 설계자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 교를 제외한 소규모의 건축물(다목적교실, 단설 유치원, 기숙사, 소규모 전면개축공사, 전면리모델링 등)은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단면계획, 설계 설명서로 구성된 A3용지 4장으로 구성된 카드도면만으로 구성된 패넌만을 제출받아 설계 심사하는 방식으로 대폭 간편화하여 시행하였다.

이 결과 <그림 9>와 같이 작품제작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에 따른 설계공모는 <표 1>에서와 같이 참여자가 많지 않았고, <그림 10>과 같이 제출도서를 대폭 간소화 시킨 설계공모에서는 <표 2>와 같이 최대 26작품이 출연될 만큼 활성화 되어 좋은 반응은 물론 좋은 작품이 선정되어 다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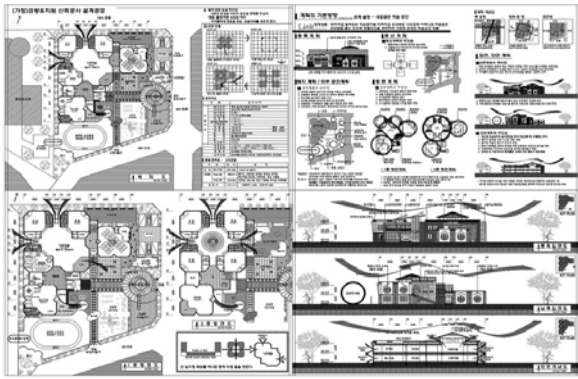


그림 10. 카드 도면만으로 구성된 심사 패널

표 2. 설계공모 추진현황(2008~2012)-소규모

학교명	사업명	설계참여 업체 수		제한
		현설 참여	작품 제출	
청주여고	청주여고 그린스쿨 조성공사	31	14	충북
서원고	서원고 기숙사 증축공사	42	17	충북
오창고	오창고 기숙사 증축공사	42	14	충북
황간고	황간고 강당, 급식소 증축공사	42	7	충북
기계공고	청주공고 교사 증·개축공사	51	13	충북
예성여고	예성여고 급식소, 기숙사 개축	51	17	충북
유리분교	장애 전용체육관 신축공사	32	11	충북
제일고	제천제일고 기숙사 증축공사	50	22	충북
진천생명과학고	진천생명과학고 기숙사신축	25	11	충북
미원공고	미원공고 기숙사 증축공사	36	16	충북
경덕중	경덕중 강당 및 급식시설 증축	55	18	충북
새터초	새터초 강당 및 급식시설증축	57	23	충북
운천초	운천초 강당 증축공사	56	15	충북
옥산초	옥산초단설유치원증축공사	58	26	충북
오송유	오송유치원 신축공사	50	21	충북
청원고	청원고기숙사증축공사	37	21	충북
증약초	증약초 교사 개축공사	22	13	충북
영동산업과학고	산업과학고기숙사 신축공사	33	15	충북
금왕유치원	금왕유치원 신축공사	63	26	충북
충북반도체고	반도체고 강당 신축공사	38	13	충북
괴산북중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37	17	충북
문광초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35	11	충북
감물초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44	16	충북
소수초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45	16	충북
목도고	기숙사 증축공사	40	12	충북
연풍초	교직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42	11	충북
중앙여고	중앙여고 그린스쿨 조성공사	50	8	충북
청주동중	청주동중 그린스쿨 조성공사	22	4	충북
충주중	충주중 그린스쿨 조성공사	22	2	충북
청주여고	청주여고 그린스쿨 조성공사	31	14	충북

교시설에 대한 기능 및 창의성이 반영된 교육시설을 조성하였다.

또한 표에 나타나지 않지만 현장설명과 참여자를 분석하여 본 결과 처음과는 달리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작품의 수준 또한 처음

표 3. 설계공모 추진현황(2008~2012) - 사립

학교명	사업명	설계참여 업체 수		제한
		현설 참여	작품 제출	
일신여고	일신여고 기숙사 증축공사	21	11	충북
청주명학교	기업형 및 다목적실 신축공사	19	11	충북
한림디자인고	한림디자인고 개축공사	16	4	충북
충원고	기숙사 증축공사	38	18	충북
보은고	기숙형 보은고 기숙학사 증축공사	28	18	충북

과 달리 제출되는 심사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작품의 완성도 정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설계공모를 통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사들의 인식도를 넓힘은 물론 다목적교실, 유치원, 기숙사 등 소규모 사업의 경우 수년에 걸친 설계공모를 통한 수많은 idea의 상호 교류를 통해 어느 정도 기본모델이 정해질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이외의 학교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까지도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보게 되었다.

이렇듯 설계공모는 복잡한 시행방법과 심사방법의 투명성 제고가 어렵다는 단점보다 좋은 학교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장점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표 3>과 같이 사립학교까지 확대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설계공모를 주관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아직까지 완벽하다 할 수 없지만 초창기에 선정된 작품은 그 계획안이 타월하다기 보다는 제출된 작품에서 어쩔 수 없이 찾아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 그렇지 않은 작품일지라도 다른 나라나 유사 설계에서 도입하고 copy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감을 떨칠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제출된 패널의 화려함이 아닌 그 기능에 맞는 계획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출도서를 대폭 간소화하여 많은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교수 외에 도내 건축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 심사에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많은 설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은 물론 좋은 작품을 제출하여야만 당선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학교시설 전문가」양성에도 기여 하였다 자부한다.

#### 4. 맺으며

공공시설 설계자 선정 방식 중 설계공모가 다른 선정 방식에 비해 시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공모기간 동안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고민한 idea 작품

이 학교시설 기능에 적합한 시설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설계공모의 장점을 살려 법에서 제시하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소규모, 단순 증축을 제외한 모든 건축설계 용역을 설계공모로 추진하길 바라며, 앞으로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심사자, 설계자와 이를 주관하는 담당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

심사부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만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간의 설계공모를 시행한 결과 심사에 참여하시는 각 분야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은 전문성을 발휘, 공정한 심사로 좋은 작품을 선정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일부 심사위원들도 보아 왔다.

심사위원 인력풀과 선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진 심사위원은 제외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하기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설계공모의 복잡성보다도 이러한 심사위원들의 불투명한 심사 과정 때문에 담당자들이 설계공모를 시행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도 다분하다 할 것이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성을 인식하여 행정자치부 예규로도 강화하여 운영방식을 변경 시행토록 하고 있지만, 규정과 방식보다 심사위원 개인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학연, 지연, 혈연에 연연하지 않고 공정한 심사와 눈에 보이는 패널의 화려함으로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 것이 진정 최고의 시설을 만들고, 좋은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둘째, 건축사들의 마인드 제고

학교건축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과 그 구성원들의 생활에 따른 동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당선을 위한 그럴싸한 공간의 조합과 필요 없는 공간들을 유사 설계에서 copy할 수밖에 없으므로 참여 건축사는 다변화하는 사회와 이에 적합한 학교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만의 특징적이고 보편적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셋째, 건축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자.

학교시설에 관심이 있는 건축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도록 공모 제출도서를 대폭 간소화하여 건축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설계공모 운영요령에도 제출도서는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적합한 건축계획을 보기 위함이지 화려한 미술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넷째, 설계공모를 활성화 하자.

개정된 행정자치부 설계공모 운영방식은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심사결과의 공개와 심사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이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설계공모 운영방식과 별다른 차이 없이 시행만 더 복잡해져 설계공모를 담당하는 주무관 입장에서 볼 때 시행에 더 큰 장애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단점으로 나타났던 일부 참여자들의 로비와 심사의원들의 그릇된 사고, 또한 시행과정이 복잡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나, 인력풀관리, 공모방식의 간소화, 심사방법의 변경 등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공평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한 심사 방법 및 과정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시행치 못하고 있지만 심사과정에 설계공모에 작품을 제출한 설계자를 참여시켜 설계공모심사위원과 이를 활용하는 학교관련자들에게 계획안에 대한 설계의도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평가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공모 참여자, 학교관련자, 심사위원 그 어느 누가 보아도 훌륭한 계획안이 당선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더 발전시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공모가 단순히 설계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지역의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감히 기대해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선된 작품은 한사람의 idea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대 26명의 idea를 넘어선 작품으로 설계공모방식이 일반경쟁입찰 보다 그 과정이 복잡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시설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정착은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담당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좋은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를 제언합니다.